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89>

JCCT 2021-11-23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지형 탐색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opography of The Welfare Attitudes among Korean People by Generation

김신영*

Sin-Young Kim*

요약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태도 측면이 세대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지지’, ‘사회서비스 대상(보편 vs 선별)’, ‘교육지출 확대’, ‘주거지원 확대’, ‘양육 및 보육 지원’, ‘청년사회활동지원’,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분석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30대’와 ‘60대 이상’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해결의 1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 ‘실업문제’,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세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그리고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의 2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60세 이상’ 세대는 ‘건강 및 의료문제’ 및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세대별 복지태도, 분산분석, 대응일치분석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depict the generational topography of welfare attitudes of Korean people. Three generational groups are made for analytical purpose, ‘between 20-39 age group’, ‘between 40-59 age group’, and ‘60 and older’. Two major statistical techniques are used,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correspondence analysis. The analysis of variance shows that the respondents’ attitudes upon ‘social services target(universal vs selective)’, ‘education’, ‘housing’, ‘child-care’, ‘youth support’, and ‘employment’ varies significantly by age groups. Correspondence analysis also shows that ‘between 20-39 age group’ is located with proximity with ‘child-care’, ‘employment’, and ‘housing’, while ‘60 and older’ is located with ‘poverty’ and ‘old age life care’. Clearly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generational difference on welfare consciousness in many areas of social policy.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significant generational differences with regard to welfare attitudes clearly exist in current Korean society.

Key words : Generational Welfare Attitudes, Analysis Of Variance, Correspondence Analysis

*정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4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2일

Received: September 24, 2021 / Revised: October 1, 2021
Accepted: October 12, 2021

*Corresponding Author: kimsy@hycu.ac.kr
Prof, Dept of Silver Industry, Hanyang Cyber University,
Korea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탐색적 연구의 성격상 이 연구는 변수 간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태도 측면이 세대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세대와 복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이다. 따라서 세대별로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계량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실제적이지도 또한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대’와 ‘복지태도’에 대한 간략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세대’에 대한 논의는 세대 개념의 발전과정과 한국의 세대구분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 문헌을 중심으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복지패널자료에 대한 교차 및 대응 분석을 통하여 복지태도가 세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분석결과가 사회정책의 발전에 갖는 함의를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세대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세대는 단순한 생물학적 연령집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란 역사적 및 사회적 과정 속에 자리 잡은 연령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대략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역사적 및 사회적으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령집단의 동시대인들과 현저히 구분되는 행동, 감정, 사고의 방식을 가질 때 이 연령집단은 학문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출생 시점의 차이는 해당 세대만이 공유하게 되는 차등적 경험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집단의 행위나 사고의 차이 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동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동년배로서의 위치만을 공유하는 것을 ‘세대위치’(generation

location)라고 명명하고 세대위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특정한 역사적 시간을 경험하면서 연대성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회변동을 만드는 힘을 형성할 때 이른바 ‘실제세대’(generation as an actuality)를 구성하게 된다. 또 이러한 실제 세대 가운데 내부결속력을 강하게 갖는 집단은 ‘세대단위’(generation unit)로 이름 붙였다. 만하임의 세대연구가 사회과학에 기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계급 또는 계층과 마찬가지로 세대가 사회변동의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정교화 한 것, 둘째, 세대성의 본질을 세대가 공유하는 의식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8]. 세대의 본질을 의식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하는 연구에서는 의식을 넘어서는 집합적 표상, 미디어, 지식 등 다양한 상징적 상호작용이 세대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4].

학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한국의 세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상 노년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화 세대는 1954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1955 - 1964년생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 붐 1세대, 1965 -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 붐 2세대, 1975 - 1984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X 세대, 1985 -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밀레니얼 세대, 마지막으로 1997년 이후 출생한 집단을 Z 세대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의 배경에는 함께 출산율과 출생아 수, 연령대별 혼인률과 같은 인구학적 현상, 대학진학률(여성의 대학진학률 포함)과 같은 교육 현상, 그리고 대중문화나 기수환경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현상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1세대의 합계 출산율은 6에 달했던 데 반해, 베이비 붐 2세대는 3-4명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X세대의 경우 학력고사에서 수학능력시험으로의 전환과 문화현상으로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하였으며, Z세대는 스마트 폰으로 상징되는 기술문명의 변화 등이 존재한다.

2. 복지태도 결정요인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개인적 이익, 자신의 속한 계급, 계층, 및 제도적 위치,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인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인간관(Homo economicus)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이며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전략에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계급결정론에 따르면 복지제도란 시장경제의 작동에 의해 파생된 계급 또는 계층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며 따라서 제도의 결과와 그것에 대한 태도 역시 계급과 계층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다 [3, 5, 9, 10].

계속해서 복지태도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영향에 주목하는 입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평등주의와 사회적 연대의식은 국가의 역할이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집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을 집단적 이해관계 또는 도덕적 의무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2,6]. 마지막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급속도로 확대된 국가복지제도들은 기존의 계급분류의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 경향을 띠는 새로운 이해집단들을 창출하였으며(대표적으로 연금수급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실업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등) 이와 같은 사회집단들은 적어도 국가복지의 영역에서 경제적 계급과는 일정 무관한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된다. 즉 복지제도의 발달과 더불어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자 집단들은 사회집단으로서 복지지위를 공유하게 되고 이것이 복지태도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 7].

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 2019년 14차년도 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0세에서 80세까지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분석 대상자는 미응답자를 제외한 1,982명이다. 복지패널의 경우 저소득가구가 과표집 되어 있음으로 인해 모든 분석에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세대 구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집단 간 복지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크게 전반적 복지태도 관련 변수들과 사회정책 영역별 지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변수들로 구성되었다**.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에 보인 바와 같다. 각 변수들의 응답항목을 변수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대상’은 1) 모든 국민 대상 ~ 5)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의 5점 척도로,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1) 매우 찬성 ~ 4) 보통 ~ 7) 매우 반대의 7점 척도로, 그리고 10개의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지출 의견은 1) 훨씬 더 많이 지출 ~ 5) 훨씬 덜 지출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세대 구분은 ‘청년세대(20-39세)’, ‘중장년세대(40-59세)’, 그리고 ‘노년세대(60-80세)’로 이루어졌다.

**지출확대-또는 반대-의견을 묻는 사회정책 영역은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 ‘교육’, ‘주거지원’, ‘빈곤층지원’, ‘노인생활지원’, ‘장애인생활지원’, ‘보육 및 양육’, ‘청년지원’, 그리고 ‘실업 및 고용’이다.

표 1. 변수 기술 통계
 Table 1. Variable descriptive statistics

변수	범위	평균	표준편차
사회서비스 대상	1) ~ 5)*	2.75	1.23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1) ~ 7)**	3.96	1.56
건강 및 보건	1) ~ 5)***	2.66	.85
국민(기초)연금	1) ~ 5)	2.84	.85
교육	1) ~ 5)	2.62	.86
주거	1) ~ 5)	2.68	.92
빈곤층	1) ~ 5)	2.57	.82
노인	1) ~ 5)	2.64	.84
장애인	1) ~ 5)	2.43	.84
보육	1) ~ 5)	2.46	.87
청년	1) ~ 5)	2.73	.92
실업 및 고용	1) ~ 5)	2.91	.89

IV. 연구 결과

분석과정은 먼저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세대별로 복지태도와 정책영역별 지출확대 의견의 평균값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후분석을 통해 어느 세대 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응일치 분석*을 통해 세대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먼저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지지’, ‘사회서비스 대상(보편 vs 선별)’, ‘교육지출 확대’, ‘주거지원 확대’, ‘양육 및 보육 지원’, ‘청년사회활동지원’,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분석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30대’와 ‘60대 이상’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분석은 분할표상의 행(row)범주와 열(column) 범주를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나타내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는 자료 분석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분할표상의 두 변수들의 관계는 행변수와 열변수의 독립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카이제곱 검정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이제곱 검정은 실제 각 변수들의 범주들이 어떤 식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한다. 대응분석은 각 변수들의 범주들 간의 구체적 관련성을 도식적으로 보여 준다는데 장점이 있으며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고 평이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표 2. 분산분석 결과

Table 2. Results of ANOVA

변수	복지지출 확대	사회서비스 대상	교육	주거
	M(N/S.D)	M(N/S.D)	M(N/S.D)	M(N/S.D)
20~30대	25.88(512/5.35)	2.66(527/1.19)	2.54(523/0.86)	2.55(521/0.94)
40~50대	26.45(911/5.70)	2.65(938/1.23)	2.61(934/0.85)	2.71(929/0.92)
60세이상	26.33(500/5.47)	3.02(517/1.24)	2.72(512/0.88)	2.77(514/0.92)
F값	4.217**	17.108***	5.292***	7.543***
사후비교	1) vs 3)	1) vs 3)	1) vs 3)	1) vs 2), 3)

변수	양육/보육	청년사회 활동	실업/고용
	M(N/ S.D)	M(N/ S.D)	M(N/ S.D)
20~30대	2.36(525/0.87)	2.62(522/0.90)	2.71(523/0.83)
40~50대	2.46(935/0.85)	2.74(933/0.88)	2.82(931/0.90)
60세이상	2.55(514/0.89)	2.83(515/0.88)	2.90(515/0.93)
F 값	6.005***	6.773***	6.263***
사후비교	1) vs 3)	1) vs 3)	1) vs 3)

*: p <.1, **: p <.05, ***:p<.01

1) 20-30대, 2) 40-50대, 3) 60세 이상

다음으로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1(a)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의 1순위’의 경우 ‘20-30

대’는 ‘양육 및 보육’, ‘실업문제’,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세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그리고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문제’의 경우 노년인구의 48.3%가 등록장애인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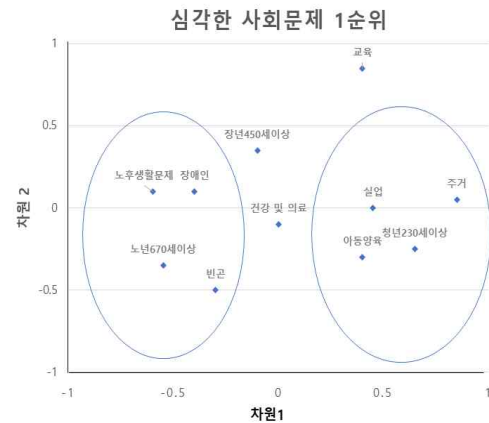


그림 1(a). 대응일치분석결과

Figure 1(a). Correspondence analysis resul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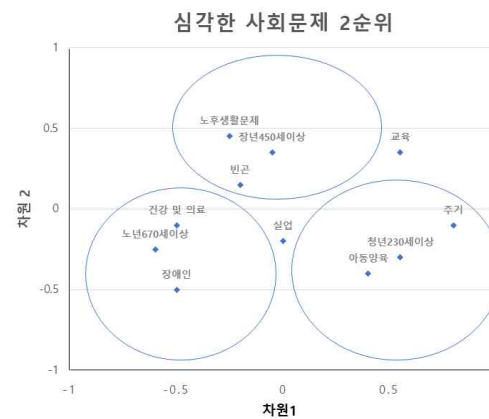


그림 1(b). 대응일치분석결과

Figure 1(b). Correspondence analysis results

다음으로 그림 1(b)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의 2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60세 이상’ 세대는 ‘건강 및 의료문제’와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20-30대’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사회 문제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였으며, ‘60세 이상’ 세대에게는 ‘빈곤 문제’와 ‘노후생활문제’는 ‘40-50대’와 ‘60세 이상’ 세대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세대와 복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이다. 따라서 세대별로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계량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실제적이지 또한 이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교차분석과 대응일치 분석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한국의 20-30대는 60대 이상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와 보편주의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지하고, 교육/주거/양육 및 보육/청년사회활동/실업 및 고용 등의 영역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복지 영역들, 예컨대 빈곤층 지원이나 노인복지,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응일치 분석에 따르면 20-30대에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는 사회문제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였으며, ‘60세 이상’ 세대에게는 ‘빈곤 문제’가, 그리고 ‘노후생활 문제’는 ‘40-50대’와 ‘60세 이상’ 세대 모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Ahn Sanghoo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ro-Welfare Attitudes and Path Structure. *Korean Social Policy*, vol.16, no.1, pp. 163 - 192. 2009.
- [2] Inglehart, R, and Abramson, P.R. Measuring Postmateri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3, no 3. pp.665-677. 1999.
- [3] Kim Heeja.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ducation and Effects of Class and Stratum on Welfare Consciousness. *Korean Social Policy*. vol. 20, no. 2, pp. 35-68. 2013.
- [4] Kim Hongjoong. Survival, Survivalism, and Youth Generation: From Sociological View of Mind. *Korean Sociology*. vol. 49, no. 1, pp. 179-212. 2015.
- [5] Kim Youngtae, Yoo Seungho, and Lee Hoonhee. Political Dynamics of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Korean Studies*. vol. 45, pp. 183-212. 2013.

- [6] Kim Shinyoung. A Exploratory Study on the Landscape of Korean Welfare Consciousnes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9, no.1, pp. 25-57. 2016.
- [7] Koster, Ferry. Globalization, Social Structure, and The Willingness to Help Other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26 Countr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23, no. 4, pp. 537-551. 2007.
- [8] Mannheim, Kar, *The Problem of Generation, in the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8.
- [9] Kim Shinyoung.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Attitudes: Focusing on State's Public Responsibility. *Survey Research*, vol. 11, no. 1, 2010.
- [10] Lee Sunggyun. The Characteristics and Determinants of Welfar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Korean Sociology*, vol. 36, no. 2, pp. 205-228. 2002.